

# 종교계 최초 '성소수자 연구보고서' 발간

### 불사연, 4월 27일 성소수자 18명 현상학적 연구 결과 발표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더라도 편박하고 반대만 할 수 있을까요? 육체가 불편한 장애인처럼, 아니 어쩌면 성소수자들은 더 큰 정신적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 대한 이번 연구가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는 4월 27일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 불교’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종교계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것은 최초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는 왜 ‘성소수자’에 주목하는가. 불사연 측은 팔리어 율장에 나타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소개하며 “성(性)과 관련해 붓다는 출가한 사람의 도덕적 생활에 대해 문제를 삼을 뿐 일반 재가자들에게 대해 도덕적 평가는 거의 하지 않았다”며 “불교단서 동성애가 비난 받았다면 동성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계율로 금지된 성행위 일반을 범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사연 측은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깊고, 성적 관념이 매우 협소하다”며 “따라서 중생의 심리적 고통 해결을 큰 화두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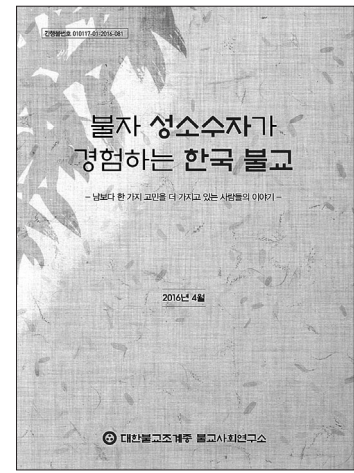
는 불교가 성소수자들의 남다른 고통에 관심을 갖고, 붓다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불자 성소수자 범회에 참석 중인 9명 포함 총 18명(케이12·레즈비언4·양성애자1·트랜스젠더1)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의식작용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론)를 통해 이뤄졌다. 이중 8명(참여자1~8)은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고, 13명(참여자 A~M)에 대해선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책임연구원은 동국대 외래교수이자 불자 성소수자 범회 지도법사 효록 스님이 맡았으며, 감사는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 교수, 연구보조원은 박상준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 박사수료생·김광미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생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과반수의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의 태도가 ‘관대하고 수용적’이라 답했다. 이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초정법회’를 불행하고, 성소수자 쿼터문화 축제에 동참하는 등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참여자1은 “불교는 종교 중 유일하게 교리 자체가 차별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존재가 이상한



동국대 외래교수 효록 스님 등 성소수자 인식 속 불교 연구 종교적 역할과 기대방향 모색도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어떤 공식 입장 없이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6은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불교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다. 인권의 한 부분인 동성애 문제에 대해 불교가 진정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10도 “사회노동위원회나 효록 스님이 성소수자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조계종단 차원의 입장은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웃종교가 ‘성소수자는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배타적인 반면, 불교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주목한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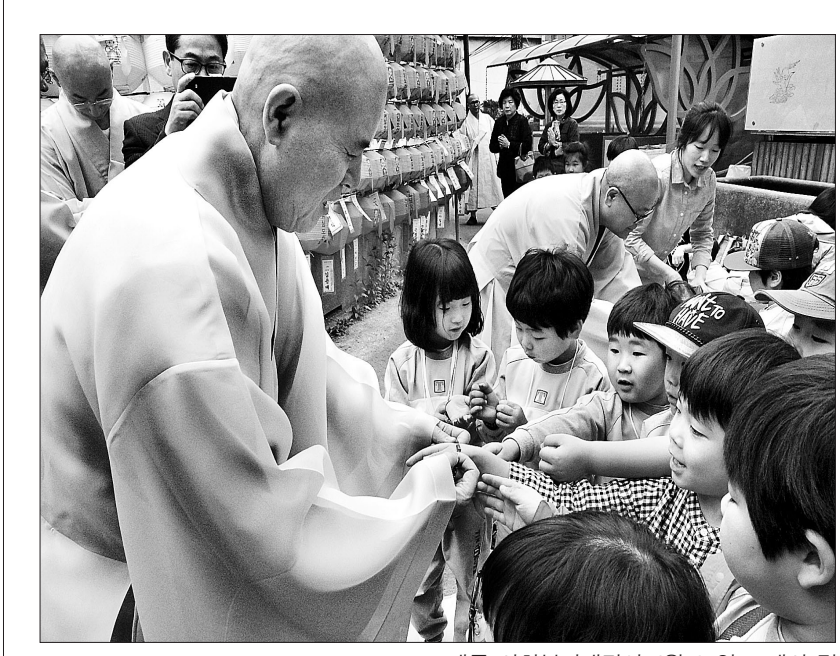
참여자1은 “기독교는 동성애를 에이즈·항문성교 등과 연계해 비난하기 때문에 불교는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란 붓다의 가르침을 근거로 성소수자를 지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불교경전 연구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성소수자들을 위한 포교 정책 개발 등의 기대사항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불교계 내부에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효록 스님은 “스님들은 대중들이 처한 현실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성찰·공감하며 치유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변화하는 사회와 대중을 알아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경전연구와 더불어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 책임 있는 대담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진불, 연등처럼 밝게 웃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4월 27일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한 ‘제9회 불교아동미술포럼’에 불교계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 800여 명이 참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행사장을 방문, 아이들에게 직접 합장주를 채워주었다. ‘감사합니다’ 하며 합장 반배하는 천진불 모습에 함께한 스님들도 흐트한 미소를 지었다. 박아름 기자

## 연등회보존회, 인사동서 ‘호기놀이’ 재현

### 4월 23~24일 200여명 참가해

서울 인사동에서 한국전통 봉축놀이인 ‘호기놀이’가 재현됐다. 연등회보존회와 대한불교청년회 산하 참여인사는 4월 23~24일 서울 인사동에서 호기놀이를 선보였다.

호기놀이는 연등회 전 아이들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연등회재료비를 모으는 놀이다. 이번 호기놀이에는 서울,

경기 지역 비로자나국제선원 어린이법회, 은석초, 길상사, 수덕사 어린이법회, 개인 참가자, 글로벌 서포터즈, 조계사 풍물팀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풍물팀과 함께 인사동 일대 80여개 상점을 방문해 보시금을 받고 상점 변영을 기원했다. 또 복인사당 마당에서는 외국인 30여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영어로 민속문화를 배우는 자리도 열렸다. 김주일 기자

## 조계종 1급 법계 품서식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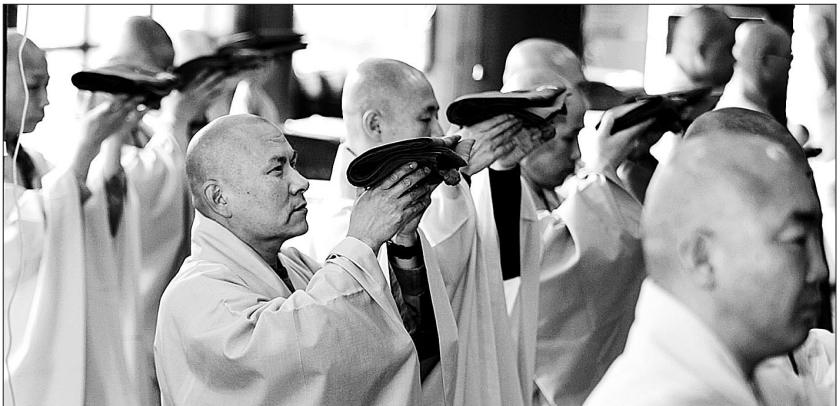
### 비구 종덕 26명, 비구니 현덕 27명 등 총 53명

조계종 1급 승가고시에 합격자에 대한 법계 품서식이 봉행됐다. 조계종은 4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계 품서식을 열고 비구 종덕 26명과 비구니 현덕 27명 등 총 53명에게 종덕·현덕 법계를 전수했다.

이날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의 대독을 통해 “종덕

과 현덕 법계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도록 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품서식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의 서원시달과 품수 스님들의 발원, 가사정대와 법계증 전달 등으로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스님 26명과 비구니 스님 27명 등 총 53명의 스님들은 종덕·현덕 품계를 품서했다. 사진은 품서식에서 가사를 정대하는 스님의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 ‘직선제’로 뜻 모아진 대중, 기로에 선 조계종

### 대중공사 지역순회 성료, 5월 18일 불광사서 종단 제안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지역 대중공사가 4월 28일 제주지역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5월 18일 열리는 중앙대중공사서 최종안이 종단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직선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4월 28일 제주 관음사에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 선호가 69.4%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4월 2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부산경남 대중공사와 4월 26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 강원 대중공사에서도 ‘직선제’가 각각 77.2%와 58%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재적인원이 많은 부산경남지역 대중공사에서는 구축계 수지자 전원이 참여하는 파격적인 직선제에 대부분이

지지의사를 표했다. 지금까지 다른지역 대중공사에서는 일정 승합 이상의 제한적 직선제 도입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다면 대중공사에서 나온 ‘직선제’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총무원장 선출법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아직

現선거법 개선안 찾기 마무리 불자대중 여론 ‘직선제’ 우세 입법은 실패사례 많아 미지수

은 미지수다. 먼저 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지역여론을 정리해 5월 18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공개하고, 최종입장을 모아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특위(위원장 조격)’에 전달한다.

특히는 이를 검토해 총무원장 선거법을 수정하고 중헌개정안과 함께 6월 예정인 임시중앙총회에 상정한다.

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개정안은 종법으로 출석인원 2/3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근간인 중헌 개정을 위해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과정으로 2009년에도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이 나왔지만 모두 법안 통과가 실패한 바 있다. 대중공사에서 참가자들의 ‘결국 둘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중공사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끓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길게보고 불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공사추진위가 불교계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별 대중공사는 권역별 불자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인사 주지 항적 스님은 “출가하고 처음으로 종단의 중요현안에 대해 지역 사찰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 종단 출범 후 이런 방식의 대중의견 청취는 처음”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이때 선출법을 만들면 축제와 같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불교는 역사 속에서 대중들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한국불교가 맞이한 도전 역시 대중들의 열린 논의와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도 “대중들이 모여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본다”며 “문수의 지혜가 이런 자리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비로운 마음 평화로운 세상

# 2016 부산연등축제

## Busan Lotus Lantern Festival

불기 2560(2016)년  
4.30(토)~5.15(일)  
송상현광장 / 광복로 / 구덕운동장

- 부산연등문화제  
4월 30일(토) ~ 5월 15일(일)  
송상현광장
- 5월 1일(일) ~ 5월 15일(일)  
광복로
-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회 연등행렬]  
5월 7일(토) 오후 4시 ~ 오후 10시, 구덕운동장  
행렬구간 : 구덕운동장~동아대 부민캠퍼스~대청로
- 2016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  
문의 : (051)867-0501  
전송 : (051)867-0504  
홈페이지 : www.bba.or.kr  
www.bba48.or.kr

주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16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시실공단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